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3분기 경제 성장 2.8%... 강한 소비 지출 덕분
- Bloomberg: ADP “10월 미 고용,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상승”
- CNNBusiness: 컨퍼런스 보드 “10월 미 소비자 경제 더 낙관적”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 줄인다
- JP모건: 미국과 글로벌 금융 전망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잇는 경전철 생긴다

[주택]

- Bloomberg: ‘미주택, 2019년에 샀다면 15만8천불 이익’
- Bloomberg: 미 모기지 금리 6.73%... 7월 이후 최고치

[오일]

- WSJ: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유가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스타벅스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으면 해고한다”
- Bloomberg: 프라다, Z세대에 어필하면서 경쟁사 앞지르다
- WSJ: 맥도날드, 이콜라이 대장군 파동 이후 신뢰 회복 노력
- WSJ: 전기 비행 택시, 연착륙 힘든 상황이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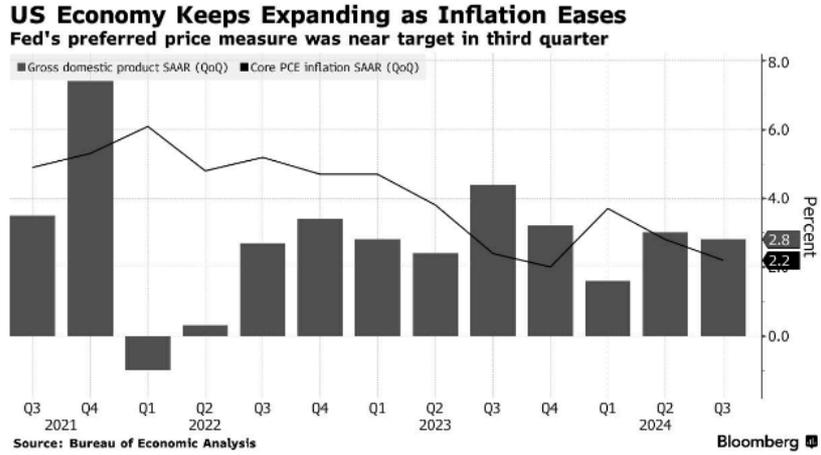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Economy Expands at 2.8% Rate, Powered by Resilient Consumer

미 3분기 경제 성장 2.8%... 강한 소비 지출 덕분

- 미 대선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미 가구의 지출이 확대되고, 연방 정부가 국방 지출을 늘리면서 미 경제 3분기가 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연방정부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미 국내총생산이 인플레이 조정치로 연 2.8% 성장했다. 2분기에는 3% 성장했었다.
- 경제 활동 중에 점유율이 가장 큰 소비 지출이 3.7%나 늘었다. 작년 초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소비 지출은 주로 자동차, 가구, 레크리에이션 용품을 포함한 상품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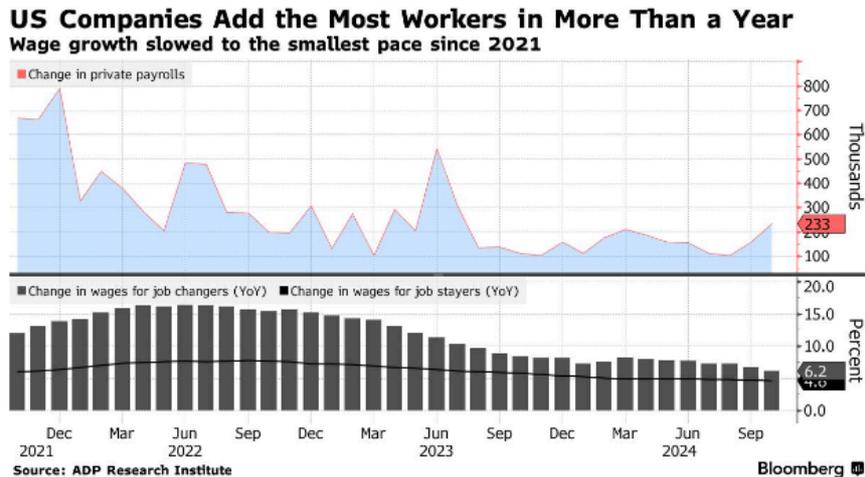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iring in ADP Data Rises to Fastest Pace in More Than a Year

ADP “10월 미 고용,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상승”

- 미 기업들의 고용 숫자가 1년여 만에 가장 큰 속도로 성장해 구인 수요가 놀랄만할 정도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ADP에 따르면 10월 일자리가 23만3천개 증가했고, 9월에는 상향 조정됐다.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어든 유일한 종목이다. 그밖에 교육, 헬스 서비스, 무역, 운송 분야들은 늘어났다.
- 이날 발표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두 차례 허리케인이 남동부를 덮치고, 보잉에서 수천 명이 파업을 했을 때도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Americans' economic mood is perking up ahead of the election, survey finds

컨퍼런스 보드 “10월 미 소비자 경제 더 낙관적”

- 미 대선을 한주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비영리 경제 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향후 노동시장과 전반적인 미 경제에 대해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관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모든 연령층과 모두 소득층에서 신뢰 지수가 높았다. 향후 12개월 동안 침체를 예상하는 응답자는 2022년 7월에 해당 질문을 시행한 이래 가장 낮았다.
- 응답자들은 최근 주식시장 성장과 낮은 금리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조만간에 비용이 큰 규모의 품목들도 구입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CNN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 Trims Fed Bets as Economy Holding Up: Markets Wrap 월가,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 줄인다

- 경제가 경조하다는 경제지표가 오늘 수요일 오전에 발표됐다. 채권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이는 가운데 주식은 별다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 주요 증시 지수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준의 금리 조치에 민감한 2년물 국채의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Advanced Micro Devices 주식은 매출 전망치가 어두워지면서 9% 하락했다. 알파벳은 판매 실적에 힘입어 6% 상승했다.

Bloomberg기사

JP모건: Top 10 takeaways: “Escalate to de-escalate” not yet priced 미국과 글로벌 금융 전망

- 공화당 승리 가능성은 저평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승리하면 그 국내 및 외교정책 파장이 클 것이다.
- 트럼프 재임 시 관세 파장은 트럼프 1기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들을 압도하고 있다.
- 무역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산업정책(정부 주도)을 강화시킬 것이다.
-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현재 장기적인 과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처리할 정치적인 의지나 긴박감은 없어 보인다.
- 유럽 경제모델은 단지 개혁해야 할 상황이 아닌, 망가진 상태로 보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국은 더이상 메인스트림 투자처가 아니다. 경기 부양책이 자신감이나 해외 투자 유입을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 금은 오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대선 이후 내년 헤지(hedge) 하기 위한 상품이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가는 상관 없다.
- 자산군으로서의 이머징 마켓은 트럼프 2기에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 AI 활용의 생산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 변혁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JP모건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 Transit Agency Takes Next Step on Brooklyn-Queens Rail Link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잇는 경전철 생긴다

- 뉴욕시의 소외된 지역으로 빠른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새로운 경전철의 디자인과 환경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 MTA는 관련 14마일 프로젝트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정부와 함께 환경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 55억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전철은 기존의 화물 전철 옆을 운행하게 된다. 경전철 노선 주변 주민의 60%는 맨해튼이 아닌 브루클린과 퀸즈의 일터로 출근한다. 이곳 저소득층 인구의 50% 이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meowners Who Bought in 2019 Are \$158,000 Richer, Study 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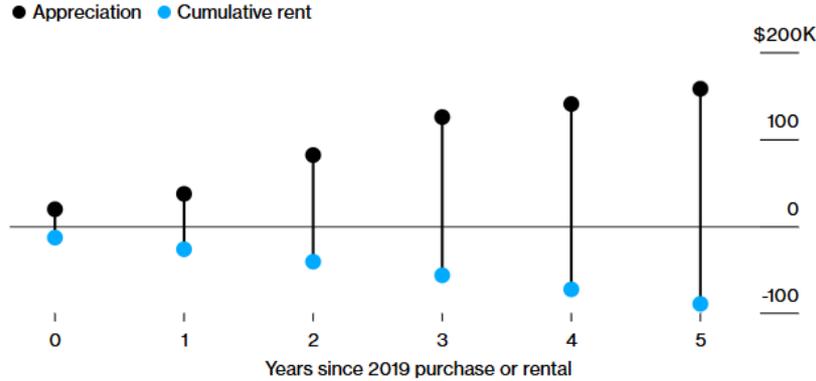
‘미주택, 2019년에 샀다면 15만8천불 이익’

- 팬데믹 직전 2019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약 3만2천 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 퍼스트 아메리칸 수석 이코노미스트 Mark Fleming은 “팬데믹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기 직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5만8천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세입자들은 8만9천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 미국 주택 소유자는 평균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다. 10년 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2만5천 달러의 이득을 봤다. 일반적인 세입자는 최근 10년 동안 14만8천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 이 연구는 중간 가격 주택의 잠재적 구매자가 5%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를 받았다고 가정했다. 또한 모기지 원금, 이자, 세금, 수리 및 보험 같은 주택 소유 비용을 고려했다. 임차인의 연간 비용은 단순히 1년 임대료로 계산했다.

How US Homeowners and Renters Fared Since the Pandemic

A home purchased in 2019, generated approximately \$158,000 in wealth. A renter over that same time period cumulatively lost \$89,000.



Source: First American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Mortgage Rates Increase to 6.73%, Highest Since Late July

미 모기지 금리 6.73%... 7월 이후 최고치

- 모기지 은행 협회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30년 모기지 계약 금리가 10월 25일로 끝나는 주에 21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6.73%를 기록했다. 7월 이후 최고치이다.
- 지난 4주 동안 이자율은 6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2023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 채용자 활동은 5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주 MBA의 채용자 신청 지수가 6.3% 감소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il Rises on U.S. Crude Stocks Draw Report But Remains Under Pressure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유가 상승

-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유럽 장 초반에 유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약세가 여전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브렌트유는 0.8% 상승한 71.27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9% 상승해 배럴당 67.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0.75만 배럴 감소했다. 미국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다.
- 하지만 중국 수요 약세, 내년 중동의 석유 증산 전망 때문에 원유 벤치마크는 여전히 한 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tarbucks Tells Workers to Return to the Office or Risk Getting Fired**스타벅스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으면 해고한다”**

- 스타벅스는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이 주 3일 사무실 근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 프로세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무실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번 주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에 따르면 더 이상 직원들에게 화요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별 리더가 팀에 적합한 근무일을 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취하는 이유는 경영진들이 팬데믹 이전의 사무실 문화로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Flex Index에 따르면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요구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 아마존과 다른 주요 기업들도 팬데믹 이전처럼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Prada Outpaces Fashion Rivals, Helped by Miu Miu’s Gen Z Appeal**프라다, Z세대에 어필하면서 경쟁사 앞지르다**

- 지난 분기 프라다 매출이 급증했다. 미우미우의 아카디 핸드백과 캐시미어 카디건의 인기 덕분이다. 프라다의 매출은 1.7%, 미우미우의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미우미우는 Z세대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미우미우는 검색 및 소셜 미디어 언급을 추적하는 Lyst 지수가 이전 분기보다 한 단계 상승해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였다. 프라다는 3위를 유지했다.

Bloomberg 기사

WSJ: McDonald’s Execs Seek to Rebuild Trust After E. Coli Threatens Sales Rebound**맥도날드, 이콜라이 대장균 파동 이후 신뢰 회복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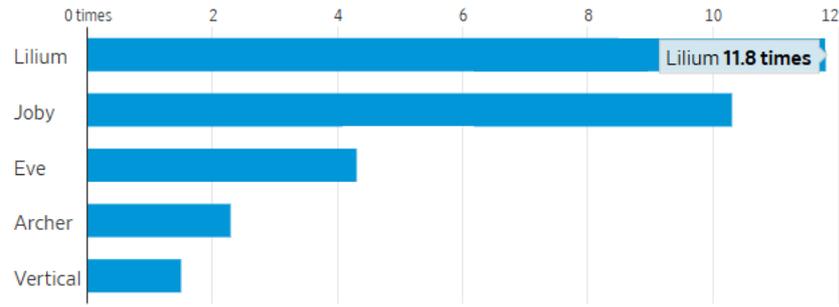
- 맥도날드가 이콜라이 대장균 파동 이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 Chris Kempczinski는 화요일 투자자 통화에서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현재 맥도날드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던 쿼터 파운드 버거 메뉴를 재판매하고 있다.
- 10월 22일 미 보건 당국의 식중독 대장균 검출 발표 이후 매출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 보건 당국은 발병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사 결과 쇠고기 패티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얇게 썬 양파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들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많은 레스토랑 체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맥도날드는 올해 초 저렴한 5달러 식사 메뉴를 출시한 후 매출이 증가했었다. 맥도날드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한 68억7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0.3% 증가했다.
- 하지만 맥도날드의 해외에서 동일 매장 매출은 1.5% 감소했다. 3분기 순이익은 3% 감소한 22억6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WSJ 기사

WSJ: Electric Air Taxis Are Already Coming in for a Hard Landing 전기 비행 택시, 연착륙 힘든 상황이다

- 전기 비행 택시가 착륙하기 위해선 활주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이륙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액이 필요하다.
- 전기 수직 이착륙 차량(eVTOL)을 개발하는 Lilium은 지난주 독일 주요 자회사가 자율 관리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관리 절차는 미국 챕터 11 파산에 해당한다.
- Lilium은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전기 비행 택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전기 비행 택시를 위한 헬리패드(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평평한 표면이나 구조물)가 부족하고, 80마일 미만의 여행에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 Lilium은 인근 도시나 시골 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크고 무거운 디자인을 채택해야 했고, 해당 디자인은 더 발전된 배터리가 필요했다. 결국 개발 기간이 길어졌고, 아직 시험 비행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 Lilium은 2024년 상반기 1억9천1백만 유로의 현금을 소진했다. 향후 5년간 12억 유로가 추가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말 Lilium이 예상한 것보다 12배 많은 금액이다.
- Lilium의 경쟁업체인 Joby와 Eve도 각각 예상보다 10배, 4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Listed eVTOL* makers, expected cash burn between 2024 and 2029 relative to their starting cash buffers



Note: Using median analyst expectations. Cash buffer figures are based on 2024 end-of-year projections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hicles
 Source: FactSet

WSJ 기사

[보고서]

'빅컷' 이후 미국금리는..."연준 다음달 0.25%p 인하 전망"
로이터, 이코노미스트 111명 설문조사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 더 유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 23~29일 이코노미스트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다음 달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12월 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103명 가운데 90% 이상이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